

인프라 미비... 투자 유치에 '한계'

■성과보다 과제 쌓인 '광양만청 10년'

가능한 산단부터 조성... 선택과 집중해야

지난 2004년 출범한 광양만청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의 관할 구역은 광양·울촌·신덕·화양·하동지구 등 5개 지구 12개 산업단지에 이른다. 광양만청은 개청 이후 인프라,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라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단 조성이 진척되면 필수로 업체들의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광양만청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지나치게 더딘 '속도' 때문이다.

산단통상지원부 정명섭 사무관은 "안타까운 것은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양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조성중인 울촌 제1산단, 해룡산단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산업단지 가운데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산단을 2020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산단부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

■광양만청 개발 현황

구분	광양지구	울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규모	13.64㎢	27.85㎢	19.97㎢	9.99㎢	12.27㎢
개발개념	물류기능	생산기능	지원기능	관광·휴양기능	생산·지원기능
개발방향	항만, 제철, 비철금속의 물류기능 유치	유화, 철강 관련산업 유치	주거·교육·레저기능 공급	관광·휴양·스포츠 등 기능 유치	생산·주거·업무 등 복합 기능 유치
주요시설	·광양항 개발 ·항만배후부지 ·CTS 등 개발	·산업단지 개발 ·컨테이너 부두 개발	·교육시설, 주거단지개발 ·골프장 등 레저시설개발	·골프, 해양 스포츠 ·콘도(레저·호텔) 등	·산업단지개발 ·주거·업무·레저시설 개발

〈광양만청 홈페이지 참조〉



다는 것이다. <광양만청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광양만청은 최근 세종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양시의 비협조로 인해 '낭패'를 봐야했다.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과정에서 참여 비율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 진전이 뒤뚱했다. 또 전남도와 잦은 인사교류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는데다 관련 인원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미흡한데다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한 자체 역량까지 뒤져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광양만청은 지난 10년간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 무역도시' 건설을 위해 지구별 개발사업과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진화정책 시행 등에 역량을 모았다고 자평했다. 광양 컨부두와 동·서측 배후지, 해룡일산단 제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울촌 제1산단과 신대배후단지 성공적으로 분양했다는 것이

다. 또 울촌 제2산단, 황금·세풍산단, 갈사만 조선산단 등 6개 산단 15.2㎢의 동시 개발에 나서고 지구별 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특화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로 4년 연속 우수청으로 선정된 광양만청은 이를 통해 동북아 복합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신산업 클러스터, 해양관광레저 허브 등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마음은 행복 경제는 빈곤

행복지수 전남 3위·광주 4위

상위 30곳에 전남 5곳 최다

전남도민의 행복지수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 도 단위에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가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만105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표본은 지역별 거주 인구 비율을 고려해 최소 100명 선으로 추출해 대표성을 부여하는데 충분하다는 게 학계의 판단이다. 행복도 관련 문항은 '매우 행복하다'(5점)~'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남도가 5점 만점에 3.7250점으로 제주(3.9124점), 울산(3.7566점)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3.7184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 양구군이 4.0210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전남에선 영암군이 7위(3.9220점), 보성군이 10위(3.8950점), 고흥군이 15위(3.8469점), 순천시가 18위(3.8411점), 화순군이 30위(3.8108점)를 차지했다. 상위 30위에 전남 5개 시군이 포함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과 서울, 경기도가 각각 3곳이 포함됐다.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도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군 단위 주민들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문화융성위, 24·25일 광주·전남 현장 방문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생활밀착 문화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대인예술시장과 미테 우그로,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책문화공간 '봄'을 방문한다.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한민호 정책보좌관 등 문화융성위원회 소속 6명의 위원은 24일과 25일 광주와 전남을 돌며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문화현장을 방문한다. 문화융성위는 24일 오전 10시 광주문화재단에서 광주시 문화현황 및 문화재단 사업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역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점과 정책건의를 청취한다. 오후에는 북구다문화가족 지원센

터, 대인예술시장과 미테 우그로,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책문화공간 '봄'을 방문한다. 이어 25일에는 전남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현황 파악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실무자들과의 좌담회가 마련된다. 오후에는 영암 구림마을을 방문해 도기박물관과 하미미술관, 한옥 풀담길을 둘러본 후 신안 안좌도로 옮겨 올레부터 진행될 김항기 미술관 건립 현황을 살펴본 후 안좌초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단의 공연현황을 관람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21, 061-280-5812. /이보람기자 boram@

진도바닷길, 30일 오후 5시 열린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도 앞바다에서 펼쳐진다. 진도군은 23일 "오는 30일 오후 5시 고군면 화동과 의신면 모도 사이 연장 2.8km, 폭 40~60m의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밝혔다. 바닷길이 열리면 소라,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모세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조수간만의 차로 바다가 갈

라지는 30일부터 4일간 이 일대에서 '36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연다. 신비의 바닷길 체험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등 전통민속문화, 대한민국 국경 진돗개, 천년의 색을 간직한 진도 홍주를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나주혁신도시에 초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도-신세계사이먼, 1100억 투자의향서 체결... 1천여명 일자리 창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호남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쇼핑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주)신세계사이먼 강영구 대표·박준영 전남지사·임성훈 나주시장(사진 왼쪽부터)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일대에 프리미엄 아울렛 건축을 위한 투자유치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전남도는 23일 "지난 2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임성훈 나주시장, 강영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00억 원(1억 달러)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 건축을 위한 투자유치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혁신도시의 성공을 확인한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이 될 우려도 높아 건립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는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전남 지역 첫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탄생,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기 정착, 무안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07년 경기도 여주에 국내 첫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한 이후 파주와 부산에서 상업 중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조성되면 혁신도시의 품격향상을 물론 관광산업 발전 등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임성훈 나주시장은 "세계적인 프

하지만 부지면적 30여만㎡에, 매장면적 3만㎡ 이상의 초대형 아울렛이 운영되면 광주·전남권 유통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블랙홀

인터네트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 전남·북, 제주 빈곤율 최고

농어촌이 대도시의 2배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광주·전남·북·제주의 경상소득 빈곤율이 7.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어촌의 빈곤율이 대도시의 2배 이상이고 소득불평등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성호 연구원이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표한 '지역별 소득분배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농어촌(군 지역)의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9.76%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해 대도시(서울·광역시, 도농복합지)와 중도시의 빈곤율인 4.07%와 4.34%의 2배 이상이다. 시장소득만을 놓고 보면 농어촌 주민은 5명 중 1명 꼴(21.27%), 대도시는 10명 중 1명 꼴(9.48%)로 빈곤선 이하에 속했다. 한편 경상소득은 임금·사업소득과 사적자산소득을 합친 시장소득에,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을 뜻한다. 빈곤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을 가리킨다. /연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광주원광신협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동본점 227-4474
금호지점 383-4474
풍암지점 653-4474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를 오시면 꼼꼼 미레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